

아동 공격성에 대한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 분석

임 승 렬

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를 알아 보려는 것으로 특히 공격적인 아동이 공격적인 보복행동을 유발하는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에 있어서 비공격적인 아동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격적 아동은 귀인과정의 요소인 의도성 추론, 분노, 적대적 반응행동 경향에 있어서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상대또래의 의도를 적의적으로 지각하고 보다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상대 또래에게 더 많은 공격적인 보복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격적 아동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비공격적인 아동에게는 의도성 추론이라는 인지가 공격적 행동을 이끄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어 : 공격성 · 귀인과정 · 의도성추론 · 시간적 경로.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기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을 정확히 예측해 왔다. 특히 학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 학교생활의 중도탈락, 심지어는 성인범죄, 정신병리 현상들과 아동 공격성의 직접, 간접적인 관계를 밝히는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공격성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 왔다.

아동은 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가?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후속 되는 공격적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Dodge & Crick, 1990; Graham, Hudley, & Williams, 1992). 즉, 공격적인 아동은, 특히 사건의 원인이 모호할 때 또래가 행하는 부정적인 사건 (예를 들면, 줄 서있는데 뒤에서 밀기)에서 적대적인 의도를 추론해 내는 귀인적 오류 내지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의도성에 관한 귀인적 편견은 보복적 행동을 유발하기 쉽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아동이 가진 문제를 그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기술의 부족, 또는 성격 때문

으로 보았으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공격적인 아동은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의 왜곡 때문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선택적 기억을 통해서이든지 간에 그들이 귀인적 모호성을 띠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부적절하게 추론하는 데 있다. 귀인과정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의도성 판단과 아동의 공격적 반응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의 귀인과정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은 의도성 추론, 분노의 감정, 적대적 반응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이 두집단의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은 의도성 추론, 분노, 적대적 반응행동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둘째, 사고, 감정, 공격적 행동에는 시간적으로 체계적인 상호관련성이 있는가?

셋째,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의 귀인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2. 가 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간에는 의도성 추론, 분노, 적대적 반응 행동경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모호한 상황과 부정적 상황에서 의도성 추론, 분노, 적대적 반응행동경향이 다를 것이다.

3)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의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는 다를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1) 귀인이론과 아동의 공격성

여기 학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자유선택활동시간이 시작되자 유아들은 각자 하고 싶은 영역으로 달려갔다. 지민이는 제일 먼저 적목영역에 도착하여 적목으로 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몇몇 유아들이 뒤이어 적목영역에 들어왔는데 그 중 석이가 우연히 지민이와 머리를 부딪게 되어 다리모양으로 쌓여 있던 적목들이 무너졌다. 곁에 있던 다른 유아들은 재미있어 하면서 웃었다. 그때 지민이는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석이의 가슴을 때렸고 두 아이는 서로 떠밀면서 싸우기 시작했다. 이때, 다른 유아들이 교사에게 싸움을 말리도록 부탁했다. 교사는 두 아이를 떼어놓고 지민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모르겠구나. 넌 항상 다른 아이들과 싸움만 하려고 하니 말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일화는 유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행동이 보여주는 상황의 복잡성을 잘 나타내준다. 지민이의 행동이 석이의 우연적이거나 모호한 도발적 행동에 즉각적으로 뒤이어졌다. 지민이는 석이의 우연한 부딪힘이 그를 모욕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해석했을까? 왜 지민이의 반응은 충동적이었을까? 아마도 지민이가 사회적 정보를 다루는 태도가 일탈적이고 이는 공격적 행동을 유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교사의 반응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분명히 교사는 두 유아간의 싸움은 지민이의 공격성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그녀는 지민이에 대한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이번 싸움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었던가? 혹은 교사는 지각적으로 석이가 아닌 지민이를 싸움의 원인으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지민이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책임

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왜 공격성을 유발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인이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각(평가, 판단)할 때, 그의 마음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좋지만 실제로는 남의 마음(태도, 성향, 의도)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우리는 그의 드러난 행동을 보고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반드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가 그렇게 행동한 까닭을 한번 추측해보고 그 마음 속을 토대로 하여 그 사람을 평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왜'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통해 타인을 알아내려고 한다.

타인행동의 관찰을 통해 그 행동의 원인을 찾는 과정을 귀속 또는 귀인과정이라 한다. 귀인과정을 통해 우리는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 행동이 반복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귀인 과정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지각자는 어떤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둘째, 그 관찰된 행동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해야한다. 의도적 행동은 우연적인 행동보다 영속적이며 의미 있다. 마지막 단계는 행동의 의도가 성향에 기인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 시키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행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래에도 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환경요인으로 귀인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라면 앞으로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특정행동을 행위자의 인적 성향에 귀인 한다면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행동이 상황변인과 무관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귀인에 따라 예측방향이 달라지므로 어떤 행동의 원인을 틀리게 귀인할 경우 그에 따라 예측마저도 부정확할 뿐 아니라 예측에 따른 대응도 달라진다.

아동기의 공격성과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원인설명이 타인이나 자기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추론된 원인은 어떠한 심리적 영향력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지위나 또래관계에 어떠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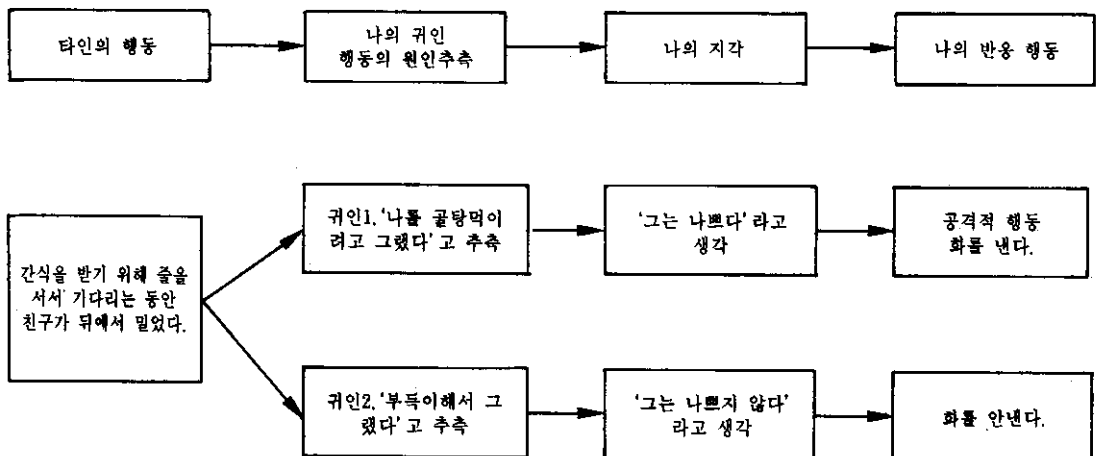


그림 1. 귀인의 과정

를 초래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회-인지 발달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적 행동유형은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외적인 사회적 사건이나 그의 기질 또는 타고난 성향, 예컨대, 인내심의 부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 아동의 인지적 요소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Eron, 1987; Slaby & Roedell, 1982). Yuill과 Perner(1988)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그들의 인지적 상태를 이해하고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Piaget를 지지해온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들은 어린 아동들은 행위자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내적인 정신상태, 특히 의도성을 고려하여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Sedlak, 1979; Fincham, 1981; Breherton & Beeghy, 1982). 몇몇 연구들은 어린 아동이 행동의 경로를 우연적 또는 의도적인 것으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erndt & Berndt, 1975; Shultz, 1980). Yuill(1984; 1988)은 3세 아동들이 동기와 결과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야기 주인공의 결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인 결과인지 우연적 결과인지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Dodge와 Feldman(1990), Dodge와 Crick(1990)은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인지적 요소를 사회정보처리모형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자극에 대한 행동적 반응은 몇 개의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며, 각 단계에서 숙련된 처리능력은 사회적 문제 상황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지만 왜곡되거나 부족한 처리능력은 일탈적이고 공격적인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이 사회적 단서를 어떻게 지각하고 그 단서를 무엇에 귀인하고 추측하는가, 개인간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

가에 대한 어떤 행동적 결정을 하는가를 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보여준다.

첫 단계는 사회적 단서의 부호화, 지각, 해석과정을 포함한다. 아동은 선택적 관심을 통해 환경적 자극에 있는 다양한 단서로부터 관련 있는 정보를 암호화한다. 또래가 도발적 행위를 할 때 또래의 의도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관련 있는 단서를 암호화하는데 실패하면 일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서들이 암호화되면 암호화된 단서들은 장기기억과 주어진 의미를 표상화하게 되는데 사회적 상황에서는 이 단계가 상대방의 의도해석과 자극의 원인에 대한 귀인과정을 포함한다. 아동의 자극행동이 명료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과정을 Dodge와 그의 동료들(1984)은 의도단서 탐지(intention cue detection)라 불렀다. 아동이 주어진 단서를 해석하는 것은 악의적 정보 혹은 선의의 정보와 같은 특정한 단서에 대한 자신의 선택적 관심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경험을 통해 유사한 단서의 의미와 관련된 자기도식의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Dodge & Tomlin, 1987).

후 번째 단계는 장기기억에서 하나 이상의 가능한 행동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들 행동적 반응들은 기억저장상자의 맨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자극의 구체적인 정신적 표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택된 반응이 반응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용가능한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어지는데, 이때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는 개인마다 다르나 실행을 위한 개인의 효율성, 수단적 결과나 개인간 결과의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도 편파적인 평가는 일탈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공격적 반응이 긍정적인 수단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하는 아동과 이러한 공격적 반응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인 아동은 실행단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반응으로 선택하기 쉽다.

사회정보처리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실행단계인데, 선택된 반응을 언어적 행동과 운동적인 행동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각본이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반응의 효과를 감시한다. 이와같은 Dodge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사회정보처리 모형은 아동이 공격적인 대응행동을 선택하는 데에는 첫단계인 사회적 단서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아동이 상대 또래의 의도성을 적대적 혹은 회의적으로 귀인하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단계인 장기기억에서의 행동적 반응의 도출과 그 행동의 실행이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친사회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2) 귀인적 편향과 아동의 공격성

아동이 지나는 사회정보처리 기제는 또래 집단에서 그가 나타내는 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사회인지적 편견과 사회인지 능력의 결핍은 공격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귀인연구들은 또래에 의한 도발적인 행동의 해석을 그 또래에 대해 공격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자극이 우연적일 때보다 의도적일 때, 예측할 수 없을 때보다 예측가능할 때 공격성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을 유발한 사람의 의도를 아동이 지각하는 것에 달려있다(Dodge, Murphy & Buchsbaum, 1984).

적대적 의도에 귀인 하는 것과 공격적 행동 반응간의 분명한 관계를 밝히는 많은 연구를 통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은 자극의 도발상황에서 상대방 또래의 적대적 의도에 귀인 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Dodge(1980)는 만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의 의도성 귀인의 비교를 통해 적대적 의도에 귀인 할 때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

며 공격적 아동은 모호한 도발상태에서 적대적 의도에 귀인 하는 귀인편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히면서 공격적인 아동은 타인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하는데 필요한 사회정보처리 기술의 결핍을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격적 아동이 사회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사회적 사건을 인지적으로 표상해 내고 타인의 행동을 범주화하고 해석하는 표상에 차이가 있다는 가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아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누군가에 의해 떠밀렸다고 생각해 보자. 떠밀린 아동이 항상 비난을 받아 온 아동이라면 그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과구성개념이 그로 하여금 상대방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발된 사건으로 표상하기 쉽고 부정적 의도에 귀인 한다.

10살 미만의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Piaget의 초기주장과는 달리 4세 정도의 유아들도 상대방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도단서에 따라 자신의 행동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Karniol, 1978). Dodge와 그의 동료들은(1984) 7, 9, 11세의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들의 또래의 의도에 관한 귀인의 차를 알아본 결과, 공격적 아동이 비공격적 아동보다 50%이상 적대적으로 귀인반응하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그들은 비공격적 아동보다 상대방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공격적으로 보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공격적 아동의 적대적인 귀인적 편향은 보복 경향성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공격적인 반응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제의도가 아니라 아동에 의해 지각된 의도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아동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적 오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

3) 공격성의 정서적 요인.

Weiner (1985, 1986)의 인과적 책임성과 인과적 의도성에 관한 연구모형에 따르면 책임성 귀인은 감정(정서)을 매개로 하여 행동과 연결된다. 그는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냈다. 사람들이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지각했을 때 이러한 지각은 도와주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나 동정심을 유발한다. 반면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분노를 불러 일으키며 도와주려는 행동은 억제된다. 이처럼 귀인이론자들은 사고가 감정을 결정하고 그 감정은 다시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고-감정-행위라는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도와주기와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었지만 공격적 행동이 외현적으로는 친사회적 행동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적 행동의 상반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귀인원리와 사고-감정-행위의 경로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의 자극제로서 감정에 관한 귀인적 개념은 순응적 행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정서에 관한 발달적 접근과 일치하고 있다 (Thompson, 1990).

귀인적 관점에서 볼 때, 사고-감정-행위의 연

결 과정은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합리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정보 처리과정의 일부이다. 개인은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 사회적 단서를 처리하고 이러한 추론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정서적 반응이 나오며 타인에 대한 행동이 논리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특히 의도에 관한 정확한 추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공격적 아동이 비공격적 아동보다 사회정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Dodge & Crick, 1990). 그렇다면 공격적 아동은 반드시 앞에서 언급되었던 사고-감정-행위의 경로를 거쳐서 상대방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림 2〉는 상대 또래의 도발적 행위의 가능성 또는 특이성과 같은 사회적 단서가 의도성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 아동들은 또래의 도발적 행위를 의도적인 것으로 지각하려는 편파적인 태도로 이와 같은 단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경로 1). 그러나 분노와 같은 정서가 귀인적 추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일탈된 아동들은 지각된 의도와 상관없이 또래의 도발적 행위에 따른 강렬한 분노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분노의 감정(경로 3)과 의도성 추론(경로 4)이 아동의 공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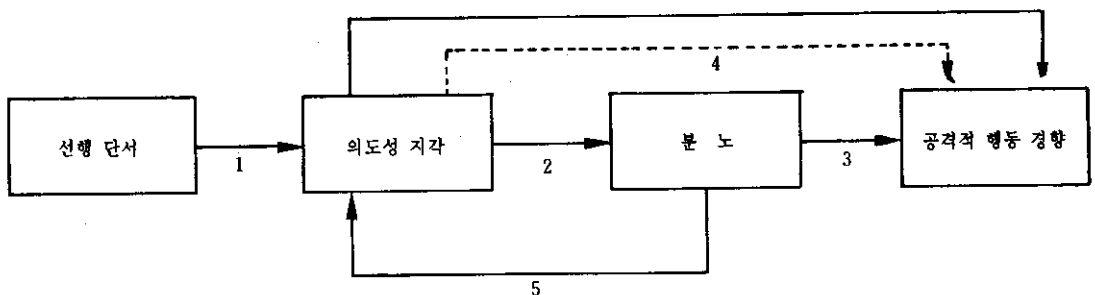


그림 2. 공격성의 시간적 경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가정해 본다. 따라서 앞에서 귀인이론가들이 제안한 선행단서에서 공격적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경로에서 사고-감정의 경로(경로 2)가 생략된다. 이같은 가정은 Parke와 Slaby(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공격적 아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각성에 대해 낮은 역치를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적 도발의 의도를 추론하면 추론된 의도에 따라 공격적 행동 또는 비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한다.

귀인이론이 제안하는 시간적 경로에 대한 또 다른 가정은 상대 또래의 도발에 대한 최초의 반응은 분노라는 정서라는 것이다. 공격적 아동은 상대 또래의 도발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어서 이같은 정서 상태는 의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가정과 관련하여 Dodge와 Somberg(1987)는 대인적인 위협상태에 노출된 공격적인 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증폭적인 상태에 있을 때보다 의도성 귀인에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후속되는 인지과정에 정서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Bower & Cohen, 1982)을 통해 정서에서 의도성 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경로 5)를 가정해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 또래에 대한 적대적 반응행동경향에 대한 귀인과정에서 정서(예컨대, 분노)와 인지(예컨대, 의도성 추론)의 기능과 비공격적 아동의 정서적 표출이 의도성의 지각과 공격적 행동 경향을 증개한다는 귀인이론가들이 제시한 사고→정서→행동경향의 시간적 경로와 공격적인 아동의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도시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과 공. 사립 초등학교 1학년 22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0명 중에서 실제로 연구에 참여할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을 선택하기 위하여 Coie와 Dodge(1988)가 만든 교사평정법과 동료지명법을 사용하였다.

교사평정법 : 각 아동의 학급에서 8개 항목의 공격성 척도에 교사가 반응(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공격적으로 지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의 유치원 교사와 4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학급의 아동들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교사 평정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1명의 관찰자가 교사가 평정하는 아동들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교사와 관찰자간의 신뢰도는 평균 $r=.87$ 이었다.

동료지명법 : 3명의 실험자가 각 아동을 면접하여 ① 그들의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②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③ 3가지 공격적 행동과 2가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에 적합한 3명의 아동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위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사회적 선호점수(liked most-liked least), 공격성 점수(세가지 공격적 행동 묘사에 지명된 수의 합), 친사회적 점수(두가지 친사회적 행동 묘사에 지명된 수의 합)를 계산하였다.

공격적 아동을 분류하기 위하여 ① 교사에 의해 지각된 공격성에서 중앙치 이상, ② 사회적 선호점수 0미만, ③ 친사회적 지명보다 공격적 지명이 적어도 두배 이상인 아동을 선발하였다. 이와같이 세가지 지수를 사용하여 공격적이고 거부되는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비공격적인 아동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① 교사에 의해 지각된 공격성이 중앙치 미만, ② 사회적 선호점수가 0이상, ③ 공격성 지명보다 친사회적 지명이 적어도 두배 이상인 아동을 선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격적 아동 45명(평균 연령=6.7세; 교사지명 $M=30.32$, $SD=7.89$; 사회적 선호 $M=-2.55$, $SD=4.52$; 동료지명 공격성 $M=21.21$, $SD=15.31$; 동료지명 친사회적 행동 $M=1.23$, $SD=1.49$)과 비공격적 아동 43명(평균 연령=6.5세; 교사지명 $M=12.02$, $SD=5.58$; 사회적 선호 $M=1.77$, $SD=2.66$; 동료지명 공격성 $M=1.66$, $SD=2.39$; 동료지명 친사회적 행동 $M=7.71$, $SD=5.71$)을 선발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귀인질문

본 연구를 위해 응답자에게 모호한 상황과 부정적 상황에서 부정적 결과(물건의 손상, 신체적 해, 목표방해 등)를 초래할 수 있는 4가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귀인 질문에서 모호한 상황이란 상대 또래가 의도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상대 또래의 분명한 의도를 지각할 수 있거나 혹은 부정적 결과의 책임이 상대 또래에게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야기 1: (피험아동)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공이 날아와 네머리를 맞추었구나. 알고보니 (피험 아동의 학급에서 임의로 선정된 아동)가 던진 공이었어. 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네 기분은 어떨까? 머리에 공을 맞은 다음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야기 2: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 밥을 먹고 있는데, (****)의 물컵이 네 식판에 쏟아져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 그때 네 기분은 어떨까? 이

런 경우에 넌 어떻게 하겠 니? 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야기 3: (피험아동)가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레고로 멋진 배를 만들었어. 선생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을 부르러 간 사이에 배는 망가져 있었고 (****)가 망가진 배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 그때 네 기분은 어떨까? 너 왜 (****)가 망가진 배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망가진 배를 보고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야기 4: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가 네 가방을 들고 있었어. 이런 경우 너는 어떻게 하겠니? 너는 왜 (****)가 네 가방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 그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때 네 기분은 어떨까?

각 이야기마다 피험아동들은 의도성 귀인, 정서적 반응과 대안적 행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평정척도로 응답했다. 의도성귀인과 정서적 반응의 경우에는 3점 척도를, 대안적 행동은 연구자가 친 사회적, 중립적, 어른에게 호소, 공격적 행동으로 분류하여 1점~4점까지 점수화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평정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실험자가 직접 평정하도록 한 후, 아동과의 면접 내용이 녹음된 것을 또 다른 면접자로 하여금 평정하도록 하였다. 두 면접자 간의 신뢰도는 $r=.91$ 이었다. 이야기의 구성이 조금씩 다른 것은 종속변인인 의도성 귀인, 정서적 반응, 대안적 행동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이야기의 구성을 이야기마다 달리했다.

측정방법

1주일 동안 3명의 실험자에게 귀인질문의 내용과 질문방법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 후, 사회측정적 조사와 귀인과정을 실험하였다. 1개월 동안 사회측정적 조사에 의해 비공격적 아동과 공격적 아

등으로 분류한 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을 1명씩 교실에서 가까운 방으로 불러 4가지 상황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 의도성귀인, 정서적 반응, 대안적 행동을 아동의 반응 그대로 반응기록지에 기록함과 동시에 소형 녹음기로 면접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동일한 질문을 두번 반복했을 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는데 전체 연구 대상 가운데 3명이 제외되었다. 전체 실험과정을 마치는 데는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방법

의도성 추론, 분노, 적대적 반응행동에 있어서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간의 차이와 모호한 상황과 부정적 상황간의 차이 및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이원 변량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의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Structural Equation Model(SEM)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아동의 사회성과 상황에 따른 귀인과정의 비교

일반적으로 공격적 아동들이 비공격적 아동들보다 의도성에 더 많이 귀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도성 추론과 마찬가지로 공격적 아동들이 비공격적 아동들보다 더 강한 정서, 즉 분노를 나타내며, 공격적인 행동으로 상대 또래에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공격적 아동들은 비공격적 아동들에 비해 또래의 도발적 행동을 의도성에 더 많이 귀인할 뿐 아니라 강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적대적인 보복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은 귀인과정

의 여러 요소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1을 지지하였다.

표 1. 아동의 사회성에 따른 귀인과정에 대한 차이 검증

	집	단	t
	공격적 (N=44)	비공격적 (N=41)	
의도성 지각	4.31 (1.07)	3.73 (.93)	3.67***
분 노	4.08 (1.09)	3.38 (.94)	4.49***
공격적 행동	5.49 (1.31)	4.41 (1.30)	5.38***

*** $p < .001$

그러나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 상황일 때는 의도성 추론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나 모호한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아동들이 비공격적 아동들보다 의도성에 더 많이 귀인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격적 아동들이 사회-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 또래의 행동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

표 2. 부정적 상황에서의 아동의 사회성에 따른 귀인과정에 대한 차이 검증

	집	단	t
	공격적 (N=44)	비공격적 (N=41)	
의도성 지각	4.09 (1.05)	3.70 (.98)	1.74
분 노	4.01 (1.16)	3.41 (.97)	2.52**
공격적 행동	5.40 (1.40)	4.34 (1.27)	3.76***

** $p < .01$ *** $p < .001$

표 3. 모호한 상황에서의 아동의 사회성에 따른
귀인과정에 대한 차이 검증

	집	단	t
	공격적 (N=44)	비공격적 (N=41)	
의도성 지각	4.50 (1.06)	3.76 (.08)	3.50***
분 노	4.16 (1.03)	3.34 (.91)	3.88***
공격적 행동	5.57 (1.21)	4.51 (1.34)	3.81***

*** $p < .001$

의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기초하여 적대적인 의도를 추론해 내는 것이다.

분노감정의 표출과 적대적 반응행동에서는 부정적 상황과 모호한 상황 모두에서 공격적인 아동들이 비공격적인 아동들보다 강한 분노와 적대적인 보복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자극제시상황(부정적 상황과 모호한 상황)과 아동의 사회성(공격적, 비공격적)에 따라 귀인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도성 추론($F(1, 166)=13.43, p=0.001$), 분노($F(1, 166)=19.81, p<.001$) 및 적대적 반응행동($F(1, 166)=28.56, p<.001$) 있어서 아동의 사회성에 따른 주효과는 있었으나 자극제시상황의 주효과와 이 두변인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귀인과정의 경로분석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성 지각, 분노, 적대적 행동경향을 상황별로 상관관계를 알아본 다음, 변인들간의 시간적 경로를 살펴 보았다. <표 4>가 제시한 바처럼 의도성, 분노, 적대적 행동경

향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상대 또래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각할수록, 화를 많이 표출하고 상대 또래에게 적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비공격적인 아동에게도 볼 수 있었으나 상관정도는 공격적 아동들만큼 크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변인들의 시간적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적 경로에 관한 세가지 모델을 가정해 보았다. 의도성 추론이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고 분노의 감정은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Weiner 등(1991)이 제안한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는 다음의 가설적인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 아동의 사회성에 따른 귀인과정 변인들의 상관

	집	단
	공격적	비공격적
의도성지각×분노	.56***	.53***
의도성지각×행동경향	.48**	.43**
분노×행동경향	.62***	.31*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감정이 중개역할을 하는 시간적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모델 1). 두번째 모델은 의도성 추론과 분노의 감정이 독립적으로 공격적 행동경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모델 2). 즉, 상대 또래의 도발행위에 대한 의도성 귀인이 분노라는 정서의 중개 없이도 적대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또는 분노의 감정이 적대적 의도성을 추론하지 않고도 상대 또래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1의 시간적 경로와는 반대로 상대 또래의 도발행동에 대한 분노가 의도성 추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직접 적대적 행동경향을 유도한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모델 3).

표 5. 아동의 사회성에 따른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 모델

	집			단		
	공격적 집단			비공격적 집단		
	path	Z	χ^2	path	Z	χ^2
모델						
의도성지각 → 분노	.652	5.96		.433	3.12	
분노 → 행동경향	.409	2.47		.272	1.28	
모델1(매개변인 : 감정)			2.96			5.47*
의도성지각 → 분노	.652	5.96		.433	2.50	
분노 → 행동경향	.611	5.27		.231	2.37	
모델2(독립효과)			23.26**			16.45**
의도성지각 → 행동경향	.270	2.12		.304	2.01	
분노 → 행동경향	.458	3.66		.167	1.75	
모델3(매개변인 : 인지)			7.43*			1.84
분노 → 의도성지각	.652	5.95		.433	2.50	
의도성지각 → 행동경향	.423	4.55		.523	2.56	

* $p < .05$ ** $p < .01$

〈표 5〉에 의하면, 감정이 중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모델 1에서는 공격적 아동 집단과 비공격적 아동 집단에서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공격적 아동들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의 매개역할이 비공격적 아동들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인지(의도성 추론)와 감정(분노)이 독립적으로 아동의 공격적 대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한 모델 2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χ^2 를 나타냈다. 이는 인지와 감정이 아동의 공격적인 보복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델 2는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공격적 아동들과 비공격적 아동들 모두 의도성 귀인이 감정이라는 매개과정 없이 적대적 행동을 유발하거나 또는 적대적인 의도를 지각하지 않

고도 분노가 공격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모델 3은 모델 1과는 달리 인지(의도성 지각)가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로에서 중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상대 또래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의도성 추론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의도성은 직접 적대적 대응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검증해 본 결과, 비공격적 아동들과 공격적 아동들간에 차이를 나타내는데, 비공격적 아동들은 의도 → 행동경향의 β 값(.523)이 분노 → 행동경향의 β 값(.433)보다 높지만 공격적 아동들은 의도 → 행동경향보다는 분노 → 행동경향의 β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 아동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χ^2 를 제시하고 있어서 공격적 아동들의 적대적 보복행동을 설명하는데에는 모델 3이 적절하지 않은 반면, 비공격적 아동

들에게 있어서는 인지 즉, 의도성 추론이 공격적 행동을 유도하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의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서 공격적 아동들의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에서는 정서(분노)가 적대적 보복행동을 유도하는 중개역할을 하지만 비공격적 아동들의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에서는 인지(의도성 추론 혹은 지각)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서가 매개역할을 하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귀인과정적 접근이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의 적대적인 대응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의 의도성 지각 혹은 추론, 분노와 상대 또래를 향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공격적 아동들과 비공격적 아동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공격적 아동들이 의도성을 추론하는데 편향된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공격적 아동들이 상대 또래에게 분노를 더 많이 느끼고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적 아동들이 타인의 동기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비공격적 아동보다 적을 뿐 아니라 감정적 역치가 낮아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Coie & Dodge, 1988; Dodge, 1993; Dodge & Crick, 1990; Parke & Slaby, 1983)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모호한 상황에서는 공격적 아동들이 일관성 있게 의도적 귀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본 연구의 핵심인 의도성 지각, 분노 및 적대적인 반응행동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특히, 의도성 지각이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분노는 다시 공격적 대응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Weiner(1985, 1986, 1991)의 시간적 경로의 유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Weiner등은 공격적인 아동이거나 비공격적인 아동 모두가 상대또래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적대적인 보복행동을 나타내는데에는 감정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공격적이거나 비공격적인 아동들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 사이의 관계는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갖는가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감정-행위라는 시간적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들 간에는 상대 또래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의도성 추론에서부터 적대적 대응행동을 취하기 까지의 시간적 경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이 같은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를 거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공격적 아동들은 정서적 각성에 대해 낮은 역치를 갖고 있으며 상대 또래의 행동에 숨어있는 의도를 고려할 능력이 적기 때문에 지각한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 없이 적대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정서 혹은 감정의 매개역할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격적 아동들은 타인의 동기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공격적 아동들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 또래의 도발적 행위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화난 감정이 즉시 공격적인 보복행동을 나타내도록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다시 고려해 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적대적인 대응행동의 표출을 자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시간적 경로에 의하면 상대 또래의 도발

적 행동에 대한 아동의 의도성 귀인이 적대적일때 분노를 표출하고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적대적 행동을 유발하므로 중재 프로그램은 우선 귀인오류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아동이 상대 또래의 의도를 제대로 지각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 아동들의 정서적 반응의 역치를 높임으로써 그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이나 전략이 중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사회-인지적 접근 방법 중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귀인과정을 통해 귀인과정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으나 연구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로 연구대상은 220명 이었으나 공격적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을 변별하기 위한 절차에서 연구대상의 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유치원, 학교상황에서 만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을 변별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둘째, 아동의 의도성 지각이나 추론 능력만을 가지고 그들의 사회-인지능력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공격적 아동들의 의도성 지각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들의 사회-인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정확하게 그들의 사회-인지 능력을 알아낼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귀인질문을 하기 위해 이야기 내용에서 상대 또래를 가상적인 인물이 아닌 피험 아동의 학급 구성원 중에서 본인을 제외한 아동들을 무선적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이야기 내용에 나오는 상대 또래가 피험 아동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그의 사회적 지위가 피험 아동의 귀인질문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상대 또래가 피험아동과 친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도 적대적 의도

에 귀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귀인질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가상적인 상대 또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erndt, T. J., Berndt, E. A. (1975).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intentionality in person perception and moral judgement. *Child Development*, 46, 904-912.
- Bower, G. G., & Cohen, P. (1982). Emotional influences in memory and thinking: Data and theory.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The 17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pp. 291-332). Hillsdale, NJ: Erlbaum.
- Breherton, I., & Beegh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The acquisition of an explicit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906-921.
- Coie, J., & Dodge, K. A. (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Dodge, K. A. (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In L. Porter & M. Rosenzweig(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4, pp. 559-584).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Dodge, K. A., & Crick, N. R. (1990).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bases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8-22.
- Dodge, K. A., & Feldman, E. (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 S. R. Asher & J. D. Coie(Eds.) (1990),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19-155).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 Somberg, D. R.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Dodge, K. A., & Tomlin, A. (1984). The role of cue-utilization in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children. Presented at the Second Invit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ognition, Nagshead, NC.
- Dodge, K. A., Murphy, R. R., & Buchsbaum, K. (1984). The assessment of intention-cue detection skills in children: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63-173.
- Eron, L. P.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t. *American Psychologist*, 42, 435-442.
- Fincham, F. (1981). Perception and moral evaluation in young 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65-270.
- Grahams, S., & Hudley, C. (1994). Attributions of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African-American male early adolescents: A study of construct access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65-373.
- Graham, S., & Weiner, B. (1986). From an attributional theory of emotion to developmental psychology: A round trip ticket? *Social Cognition*, 4, 152-179.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Guerra, N. G., & Slaby, R. G. (1990).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69-277.
- Karniol, R. (1978). Children's use of causal attribution schema and the inference of manipulative intentions. *Child Development*, 50, 463-468.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 H. Hetheringto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37-96). New York: Wiley.
- Sedlak, A. (1979).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plans and evaluating actors. *Child Development*, 50, 536-560.
- Shultz, T. R. (1980).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ntion. In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3). Hillsdale, NJ: Erlbaum.
- Slaby, R. G., & Roedell, W. C. (1982).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aggression in young children. In J. Worell(Ed.),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the elementary years* (pp. 97-149). New York: Academic Press.
- Thompson, R. (1990). Emotion and self-regulation. In R. Thompso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6, pp. 367-34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einer, B. (1991). On perceiving the others as responsible. In R. Dientsbie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38, pp. 165-19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Yuill, N. (1984). Young children's coordination of motive and outcome in judgements of satisfaction and moralit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 73-81.

Yuill, N., & Perner, J. (1988). Intentionality and knowledge in children's judgements of actor's responsibility and recipient's emotional re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358-364.

The analysis of the temporal sequence in attributional processes of children's aggression

Seung-Ryoul, Lim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Attribution theorists propose that negative actions of others perceived as intended elicit anger, and anger then function as a motivator of hostile behavior. The application of these attribution-affect-action linkages among children (6 to 8 years old) was examined. Forty three children labeled as nonaggressive and forty five children as aggressive responded to ambiguous and negative scenarios describing negative outcomes initiated by a hypothetical peer. Then they made inferences about peer's intentions, the amount of anger they would feel, and the likelihood that they would behave aggressively toward that peer. The aggressive children perceived more responsibility for hypothetical peer's behavior, expressed more anger, and elicited more aggressive behavior toward that peer than nonaggressive children. Concerning the temporal sequences of attribution-affect-action linkage, the result of this study reported that emotion mediated aggressive behavior for aggressive children as postulated by attribution theory, but the same temporal sequence in nonaggressive children was not found.

Key Words : children's aggression · attributional process · inference of peer's intention · temporal sequence